

5) 5월

단오는 우리나라 4대 명절의 하나로 꼽아왔다. ‘수릿날’, ‘천중절’, ‘중오절’, ‘단양수리’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수릿날이란 수레바퀴 모양으로 떡을 만들어 먹은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조선시대 김매순이 지은 『혈양세시기』에서는 수뢰일이라고 표기하고 이날 죽은 굴원을 제사 지내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또는 ‘수리’란 순수한 우리말로 고(高), 상(上), 신(神) 등을 의미하는 데서 유래하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단오는 중부 이북지역에는 큰 명절로 되어 있으나 전남지역에서는 아주 약하다. 크게 남성 세속과 여성 세속으로 나뉜다.

① 씨름

단오날 남자들의 놀이로 씨름이 있다. 이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해오던 놀이로서 중국에서도 고려기라 하여 소개하고 있다. 백사장이나 잔디밭 등에서 남성들이 힘과 지혜를 자랑하는 것으로 살바를 두르고 두 사람이 마주 서서 하는 놀이이다. 먼저 땅에 닿는 사람이 지게 되는데 최종 승자에게는 황소나 송아지가 수상되는 큰 씨름판도 있었다. 씨름을 할 때 살바를 잡는 방법은 크게 두 유형이 있는데 경상도는 ‘왼씨름’, 전라남도는 ‘오른씨름’으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경상도의 왼씨름으로 통일되었다.

② 그네뛰기

여성이 하는 놀이로서 그네뛰기가 있다. 가로로 뻗은 나뭇가지나 기둥을 양쪽으로 세워 그네줄을 매고 그네를 뛴다. 그네는 한 사람이나 또는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뛴다. 높이 치솟아 오르는 모습이 무척이나 고와 보인다. 여성의 외출이 통제되었던 옛날에도 단오일만은 그네뛰기를 하도록 허락되었다 한다.

③ 창포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으면 윤기가 있고 부드러워진다고 하여 주로 여성들이 하였다. 창포를 삶을 때는 쭉을 함께 넣어 끓이기도 한다. 여성들은 단오날 아침에 상추 잎에 묻은 이슬을 털어내서 세수를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얼굴이 고와진다고 한다. 또는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도 하며, 얼굴에 버짐이나 땀띠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④ 약초

단오가 되면 온갖 풀이 약이 된다고 하여, 약을 만들거나 약점을 한다. 먼저 즙을 내서 먹는 것으로 익모초나 쭉을 찧어서 즙을 내 마신다. 이는 매우 쓰기 때문에 먹기가 거북하나 식욕이 왕성해지며, 속병이 없어진다고 하여 먹는다. 그리고 백초가 약이라고 하여 무슨 풀이든 여러 종류의 풀을 베어 말리기도 하고, 방을 뜨겁게 한 후 방에 풀을 깔고 그 위에 자리나 가마니를 덮고 누워 찜질을 하기도 한다.

또는 아홉 고랑의 풀이 약이 된다고 하여 아홉 고장을 돌아다니면서 풀을 베어 같은 방법으로 찜질을 하기도 한다. 특히, 아기를 낳고 삭신이 아픈 부녀자들에게 효험이 있다고 하여 대부분 부녀자들이 찜질을 한다. 익모초나 인동초는 여러 풀 중에서도 특히 여자에게 좋다고 하여 이날 베어서 말려두었다가 가을걷이가 끝나면 달여서 먹기도 한다. 이밖에 단오 물맞이라 하여 신경통이 있는 사람은 산·계곡을 찾아가 떨어지는 물을 맞기도 한다.

